

책임기의 모험과 좌절 담아낸 첫 평론집 새로운 글쓰기의 가능성 치열하게 모색

— 「글쓰기의 최저낙원」 펴낸 신범순씨

이 책 그 사람

똥물을 한 10년 폭
묵혀서, 가라앉을 것은
죄다 가라앉은 후
투명한 푸른색으로
떠오른 물을 마시고서
소리꾼들은 得音한다는 말이 있다.

‘명창예비생’들이 마신 ‘물’은 기실 고통과
인내의 세월이 빚어낸 자기 몸의 육즙이었을
터이다. 나이 서른 일곱에 첫 문학평론집
「글쓰기의 최저낙원」(문학과지성사)을 낸
신범순씨(관동대 국어교육과 교수)의 글은
‘득음의 똥물’과 흡사하다. 오랜 세월동안
묵히고, 멎치고 응축시킨 엄청난 인력을 가진
언어들이기 때문이다. 단 한줄의 문장도 쉽게
읽히지 않지만, 그런만큼 쉽게 잊히지
않는다.

“전혀 독해가 안 되는 글” 또는 “아무도
읽지 않는, 혹은 읽지 못하는 글”. 그것이
그의 글쓰기의 지향점이라고 한다. 너무나
풍요한 육체를 지닌 글을 쓸 것.

그같은 글쓰기의 한 예로 신범순씨는
李箱의 수필 「최저낙원」 중의 한 대목을
제시하고, 첫 평론집의 제목으로 삼았다.
“안전을 헐값에 파는 가게 모퉁이를 돌아가야
최저낙원의 浮浪한 막다른 골목이요 기실
푹된 골목이요, 기실은 막다른
골목이로소이다.” 막다른 길이면서 동시에
푹된 길이란 “미로”가 아니던가. 그 미로를
적극적으로 용인하고 긍정하는 가운데
“최저낙원”의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는 것. 즉
전통적인 휴머니즘의 “소박한” 진리론이
설정된 “단일한 유토피아”가 박살난 요즘
시대는 “실락원”이 아니라, 비록
미로속이지만, 새로운 자유가 형성되기
시작한 “최저낙원”이라는 설명이다. ‘문학은

죽었는가’라는 질문 대신 “어떻게 새로운
글쓰기가 가능할까”가 그의 화두인 셈이다.

그래서 그의 글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문장은 “이제는 ~할 때이다”란
것이다. “글쓰기의 단위인 언어를 새롭게
생각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고전적
언어습관, 고전적 장르구분, 문학중심주의,
인쇄매체중심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언어와 문학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란
요지이다. 그의 비평의 축수가 ‘나는 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시인을 오래 더듬는
것도, 작품론에서 ‘변신 모티프’를 즐겨
발견해내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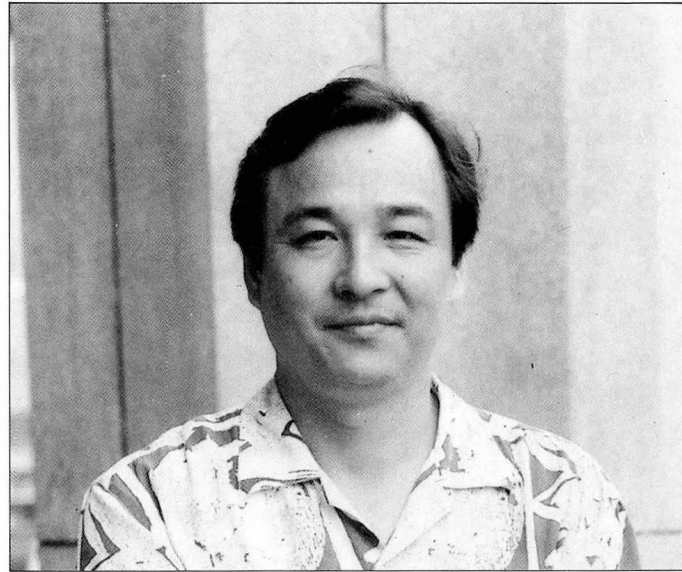
“여성주의의 얼굴들”을 묘화한 「반외디푸스,
지네시스, 유혹」을 쓴 것도, 허수경·이선영·
김승희·박서원 등 여류시인을 읽어낸 것도.

그는 이어서 ‘문학’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중의 하나는 “기록물”들의 역사에 대한 성찰
한가운데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예컨대 “신의 말씀의 흔적을 엿보려 한” 漢字,
“우리 선인들이 책처럼 판독”했던 자연,
“인간사회의 온갖 드라마를 연출”했던
풍수사상, “신체의 책을 판독”했던 관상학
등이 그 기록물들이다.

“나는 문학비평이 바로 이러한 이질론적
텍스트의 깊이 속으로 파고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시대의 문학작품을 읽는
것은 그래서 끊임없는 모험과 좌절의
행위입니다. 최저낙원이라는 이미지는 그러한
모험과 좌절의 순간들을 긍정하고, 우리의
가능한 현실 속에 정착시키려는 한 방향을
가리킨다고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사유와 글쓰기에 대한 그의 癖이다.

— 김준식 기자



격동의 해방전후사 형상화한 대하정치소설 몽양계 인물 중심축으로 줄거리 엮어나가

— 「적과 동지」 펴낸 강준식씨

이 책 그 사람

식민과 해방, 분단과
전쟁, 독재와 투쟁의
파비린내나는 우리
현대사는 그것을
감당해야 했던

민중에게는 고난 그 자체였지만 작가에게는
‘행복한 자산’이라는 아이러니한 의미를
가진다. 외국작가들에겐 ‘노다지 광맥’에
비유되는 값진 소설적 재료를 가졌음에도,
그러나 그 민중의 아픔을 위무하고
반추시켜줄 뛰어난 역사소설을 가지지 못한
것이 작금의 우리 문단 현실이다. ‘역사’의
이름을 가진 작품은 수도 없이
쏟아져나왔으나 풍부하고 정확한 사료에
기초하여 史實을 충실히 묘사해낸 참다운
의미의 역사소설이 드물다는 이야기다.

“역사소설이란 문학적 진실만을 추구하는
장르가 아니기 때문에, 몇가지 역사적 사건을
빠대로 주인공에게 과거의 시대적 옷만 입혀
작가의 편의로 그리는 ‘있었음직한’
이야기는 그저 ‘시대소설’일 뿐이다”고
단호히 말하는 작가 강준식(47)씨가
‘정문일침’의 발언만큼이나 자신있게 최근
펴낸 「적과 동지」(전7권, 한길사)는 소설을
읽으며 ‘메모’하는 것이 곧 역사공부가 되는
‘진짜배기’ 역사소설로 학계와 문단의 화제가
되고 있다.

구상 12년, 취재 7년, 집필 4년의 기나긴
시간의 용광로에서 하버드대의 연청,
컬럼비아대의 동아시아도서관, 일본의
국회도서관을 비롯 국내 생존자들의 증언 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자료를 녹여
문학적으로 형상화해낸 이 소설은,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열려진 가능성의 시기”로
꼽히는 해방에서 분단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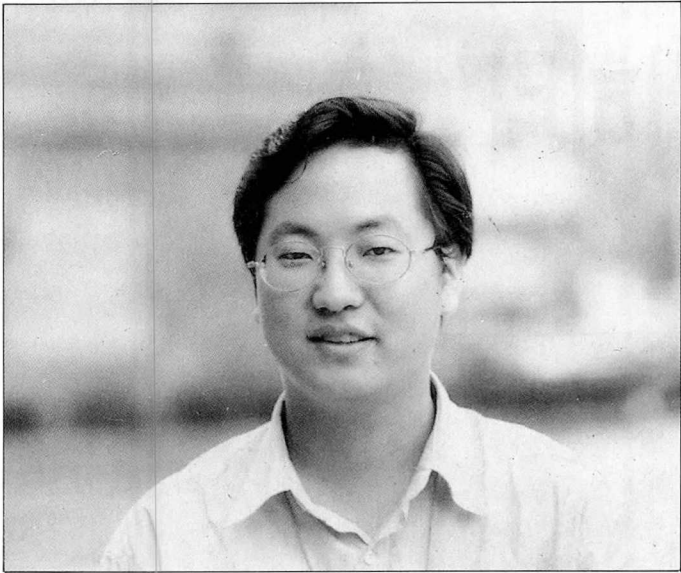
외세를 업은 각 세력간의 암투와 분열, 통합과
좌절의 긴박한 과정을 여운형그룹의
‘현실주의적·평화주의적 민주통일노선’을
중심부에 두고 그려내고 있다.

“박헌영, 김구, 김일성, 이승만, 김규식,
김두봉, 여운형 등 각각 정치적 입장을
달리했던 해방정국의 7대 지도자들 가운데서
여운형, 더 정확히는 여운형그룹의
민족통일노선을 소설의 축으로 삼은 것은
해방공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몹시
흡사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그것이
옳아서라기보다 어느 노선보다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노선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하면서 왜 그것이 좌절되고 말았는지,
거기서 얻어낸 역사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피 현재의 통일작업에 방향을
찾아보려했지요.”

이같은 역사소설의 본질적 임무 외에도 이
소설이 갖는 큰 수확은 흔히 터러는 우파
민중봉기는 좌파라는 이분법적 인식의 배후에
가려진 좌파 내의 치열한 권력암투라든가,
패망을 예상한 日총독부가 해방직전 수립한
한반도 통일정권 방해공작의 실체가 낱낱히
폭로되는 등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적 사실이
이 소설을 통해 대거 밝혀지는 점이다.

조정래의 「태백산맥」이 지리산의 능선처럼
유장하게 감아드는 ‘읽는 맛’이 있다면 「적과
동지」는 당시의 화려했던 정세마냥 명징한
묘사로 박진감 있게 읽히는 재미가 있다.
작가는 69년 동아일보신춘문예에 「월요일에
죽는 남자」가 당선되어 등단, 유신말기와 5공
중반까지 미국에서 기자생활을 하며 한국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기사와 논설로 필명을
날리기도 했다.

— 정혜욱 기자



추리기법 응용해 미래세계 그린 과학소설 컴퓨터 통신망 연재작품 책으로 묶어내

—「스핑크스의 저주」 펴낸 이성수씨

이 책 그 사람

작가는 자판을 두들겨 글을 쓰고 독자는 통신망을 통해 컴퓨터 모니터에 떠오른 소설을 읽는 일은 과학소설에

나오는 공상이 아니라 과학소설을 쓰는 방법이 되었다. 지난 89년 첫 컴퓨터 연재소설 「아틀란티스 광시곡」을 발표해 화제의 주인공이 됐던 이성수씨(25)가 「우먼 Q」 「바이러스 임진왜란」에 이어 「스핑크스의 저주」 연재를 마감하고 그것을 단행본으로 묶어냈다.

화제의 책 「스핑크스의 저주」(고려원미디어)는 전자공학도인 작가에 의해 컴퓨터로 씌어지고 통신망에 연재됐던 소설을 단행본으로 묶은, 컴퓨터와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소설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줄거리는 세계를 지배하려는 컴퓨터와 싸워 인간이 승리한다는 것. 서기 2010년 스텝크스 복원작업 중 발견된 컴퓨터 설계도면을 입수한 미국은 외계에서 온 컴퓨터인 스텝크스를 제작한다. 슈퍼컴퓨터인 스텝크스는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 떠오르지만, 끝내 인간을 말살하려는 계획이 들통나고, 한국인 기자인 영훈을 비롯한 몇명의 과학자들은 오디디푸스 특공대를 조직해 한판 승부를 겨루게 된다.

이 소설은 비단 글쓰기의 신장르를 개척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 것은 아니다. 추리기법을 이용해 무엇보다 읽는 재미가 뛰어난 뿐더러 그 재미가 작가의 전문지식과 맞물린 완성도 높은 작품이란 점이 정작 주목할 부분이다.

“연재의 속성이 그렇듯이 컴퓨터소설 역시 하루 걸러 한번씩 연재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치밀한 구성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역사를 반영한 작품을 쓰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독자들의 반응을 통해 검증될 때가 가장 기쁠 겁니다.”

그런 그의 의도는 작품을 통해 스텝크스 신화와 함께 광개토태왕의 발견, 「삼국유사」의 기록을 교묘히 접목시키는 것으로 표출된다. 그의 소설이 ‘한국적 SF의 시도’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 서울대 전자공학과에서 화상전화기를 연구하며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그의 과학분야 전반에 걸친 지식은, 이 소설에 나오는 첨단기계 등이 “2010년이면 90% 이상 개발가능한 것”이란 말의 물증으로 작용한다. 특히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유전공학에 대한 그의 해박함은 소설의 재미를 한층 높이고 있으며,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구성력도 돋보인다.

과학소설을 쓰기 위해서는 방대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세를 거의 자료구입을 위해 쓰고, 책임기에 몰두한다는 이성수씨는 이 소설을 읽은 많은 독자들이 “컴퓨터를 인격체로 보게 되었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다고 전한다.

“박사과정이 끝나면, 우리 역사 속의 고대문명과 동아시아의 전설 또는 신화에 숨어 있는 SF적인 요소를 작품에 담아내기 위한 공부를 더해 문학과 과학의 대중화에 힘쓰고 싶습니다.”

아이작 아시모프의 작품을 유달리 좋아한다는 이성수씨는 “만화와 영화, 그리고 과학소설을 통해 과학을 일반인도 접하기 쉽도록 포장해야 한다”는 지론을 PC 동호회인 ‘멋진 신세계’와 추리작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실천하고 있다.

—최태원 기자



영화서나 보던 특수부대의 실체와 활약상 세계각국 비정규전 주역들 상세히 소개

—「람보와 바보」 펴낸 김선한씨

이 책 그 사람

5공 초인 지난 83년 3월 말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이 남미 수리남의 좌익 군사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한국군 특수부대원을 동원하려 했던 사실이 최근 밝혀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한국의 언론에 발표한 사람은 현재 연합통신 특집부의 김선한 기자(34).

김기자가 최근에 펴낸 「람보와 바보—새로운 전쟁의 주역 특수부대」(예음) 또는 부제가 보여주듯이 세계 특수부대의 활동과 현황을 기술한 책으로, 저자의 직업에 걸맞게 모든 사실에 충실한 기록이긴 하지만 소설적인 서술방식을 택하고 있어 읽는 재미도 더해주고 있다.

“소련이 붕괴되고 미소간의 이념대립이 완화되면서 핵전쟁과 전면전의 발발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제 마약전쟁이나, 인질구출, 대 테러전의 양상을 띠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정규부대가 아니라 비정규부대 즉 특수부대만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김선한씨는 외국의 군사잡지를 뒤지는 한편, 우리나라의 전역 특수부대요원을 만나러 다녔다고 한다. 자료를 하나씩 접할 때마다 김선한씨는 특수부대가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 위상의 증감이 있어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즉 어쩔 때는 ‘람보’처럼 영웅이 되었다가 또 어쩔 때는 ‘바보’가 되기도 한다는...

그 람보들의 활동상을 모두 9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미국의 SEAL, UDT, 그린베레, 델타포스 등

영화에서나 볼만한 이름들이 거론된다. 이어서 네팔 그루카족으로 구성된 영국의 특수부대(5장), 모사드의 행동대원을 자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특수부대(6장), 우리나라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올림픽 때 ‘한국의 델타포스’를 훈련시킨 독일의 특수부대(7장), 올림픽 선수단으로 가장해서 서울에 잠입했던 구소련의 스페츠나츠(8장)를 다루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9장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특수부대를 설명하고 있다.

특수부대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책에 실린 내용을 꾸며낸 영화의 대본처럼 생각할지도 모를 일이다. 동네 비디오방에서 흔하게 구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선한씨의 말에 의하면 책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는 것. 지난 걸프전 때 쿠웨이트 해안에 1만7천명의 해병대를 상륙시키기 위해 잠입한 미 SEAL대원의 ‘눈부신 활동’이며, 81년 1월초 중미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미공군기지를 테러단이 기습, 핵폭탄을 탈취하고 인질과 함께 밀림으로 도주한 사건을 리처드 마친코라는 지휘관의 SEAL대원 6명이 진압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비디오에서 많이 봐왔던 내용들이다.

김기자는 권영해 국방부장관에게 보내는 편지를 권말에 실고 있는데, 우리의 람보(특수부대)가 미래전쟁의 주역이 될 것이라면 특수부대에서의 낯은 교범의 사용, 영관급 장교들의 전문성, 하사관들의 의견개진 통로, 장비의 효율적 사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 김선한 기자는 육해공 3군이 모두 대등한 위치로 참가하는 통합형태의 조정기구를 만들자고 권유하고 있다.

—이성수 기자